



◆ [Focus]

- (바이오) 바이든 대통령,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 계획 공개

◆ [What's News]

- (투자규제) 바이든 대통령, 외국인 투자 심의 강화 행정명령 서명
- (철도파업) 백악관 개입으로 철도 노사 양측 잠정 합의 도달
- (친환경) 백악관, 연방정부 주도의 신규 친환경 계획 발표
- (소매판매) 8월 소매판매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우려 증가
- (경기침체) 페덱스(Fedex) 부진 전망에 세계 경기침체 진입 우려 고조

FOCUS

1. [바이오] 바이든 대통령,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 계획 공개

- 바이든 대통령, 9월 12일 보스턴에서 '켄서 문샷' 등 보건정책 홍보
 -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문샷(Moonshot) 연설 60주년 행사 참석
 - 자신의 대표 보건정책인 '켄서 문샷'(Cancer Moonshot)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 제시
 - '16년 오바마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의 주도로 달 착륙에 성공했듯, 암 정복을 위해 약 1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되는 '켄서 문샷' 정책 출범
 - '15년 뇌종양으로 장남을 잃었던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켄서 문샷의 사령탑을 맡아 부처별 정책을 총괄한 바 있음.
 -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켄서 문샷 이니셔티브 재점화
 - 25년 안에 현재 암 사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 백악관 팩트시트(9.12)를 통해 켄서 문샷을 주관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인 '켄서 케비넷'(Cancer Cabinet)은 주요 정책 성과 공개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암 환자들의 조제약 가격 부담 완화
- 국립암연구소(NCI)가 개시한 다중 암 진단 연구
- 차세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개시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가 마련한 연방 연구개발 지원 지침
-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항암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
-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항암 연구 정보 공유 프로그램 등

□ 보건첨단연구계획청(ARPA-H) 수장 임명

- 바이든 대통령은 ARPA-H 운영을 담당하는 디렉터에 리네 베르그진 (Renee Wegrzyn) 박사 선임
 - ARPA-H는 보건 및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에서 정부 역량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국립보건원(NIH) 내 신설된 독립 정부 기관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ARPA-H 설립 강력 추진. 이를 받아 의회가 '22년 예산법을 통해 10억 달러의 예산 승인
- ARPA-H는 1958년에 설립된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을 모델
 - 소련의 우주 탐사선 스푸트니크호 발사 직후에 설립된 DARPA는 인터넷, 드론, 스텔스 기술 등 미국의 국방 기술 혁신 선도
 - 바이든 정부는 ARPA-H를 통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 난치성 질환 예방·진단·치료 프로젝트를 기획, 연구 활동 지원 예정

□ 바이오 기술·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를 제안
 - 행정명령(9.12)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개발한 모든 것이 미국 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 표명
- 향후 10년 이내 약 30조 달러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필요성 강조

- 미국 내 바이오 혁신을 촉진하고 보건,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 걸친 바이오 경제 성장을 추동하겠다고 밝힘.
- 동 행정명령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제안
 - (1) 바이오 기술·제조를 위한 연방 투자 확대, (2) 기술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 조성, (3) 미국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4) 바이오 에너지 및 제품에 대한 시장 기회 확대, (5) 인재 육성 투자, (6)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강화, (7)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조치, (8) 국제 연구·개발 협력 증진 등 제시
 -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경제 보좌관 및 과학기술정책 국장과 협의하여 개별 정부 부처의 활동을 총괄 조율하게 된다.

<첨단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3조) 바이오 R&D 역량 강화

- 보건, 에너지, 농업, 상무 등 관계 부처는 180일 이내 백악관에 바이오 기술 육성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접수 10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은 집행 계획 작성
- 행정명령 후 90일 이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부처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4조) 바이오 경제를 위한 데이터

- 24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이 유전자, 다중체학(Multiomic) 등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공개
- 상기 계획 공개 후 국토안보부가 유관 사이버보안 대책 제안 등

(5조) 미국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

- 행정명령 후 180일 이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전략 수립 보고
- 1년 이내 농무부는 바이오매스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계획 제출 등

(6조)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 1년 이내 유관 부처는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프로그램 수립
- 1년 이내 예산관리국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정부조달 실태 파악 보고

(7조) 인력 개발

- 200일 이내 상무부, 노동부, 교육부 등은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보고
- 2년 이내 연방 정부 차원의 바이오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과 보고 등

(8조)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180일 이내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정 제안서 제출
- 상기 제안서 제출 후 100일 이내 규정 개정을 위한 업무분장, 추진계획 등 공개
- 1년 이후(매년 3년 동안) 규정 개정 결과 업데이트 및 추가 행정 집행 제안 등

(9조) 바이오 안전·안보 리스크 완화

- 180일 이내 보건부는 바이오 안전 강화 계획 수립 보고 및 1년 이내 결과 보고

(10조) 바이오 경제 측정

- 90일 이내 상무부는 바이오 경제의 분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 경제 성과 측정 방안 마련 등

(11조) 미국 바이오 경제의 리스크 평가

- 240일 이내 국가정보부는 미국의 바이오 경제 리스크를 평가하여 백악관에 보고
- 국가정보부 보고 후 120일 이내 국가안보 보좌관은 행정, 입법 조치등 관련 계획 수립 등

(12조) 국제협력 증진

- 180일 이내 국무부는 무역대표부와 협력하여 국제 바이오 기술 협력 진흥 계획 수립 보고

[자료 : 백악관 홈페이지]

□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부처별 예산 계획 발표

- 9월 14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 기술·제조 관련 장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총 20억 달러 예산 계획 공개
 - 국방부는 국내 바이오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출연. 국방부는 추가로 2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 및 사이버 안보 강화에 노력 예정
 - 보건부는 4,000만 달러 예산으로 원료의약품, 항생제 등 핵심 바이오 공급망 확충에 나서고, 농무부는 친환경 비료 생산 등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와 에너지부가 각각 3,200만 달러, 1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바이오 기술 혁신 증진

* 자료 : 백악관 홈페이지(9.12)

□ [투자규제] 바이든 대통령, 외국인 투자 심의 강화 행정명령 서명

-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위험성을 심사하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 기준 강화
 - 이번 CFIUS 기준 확대 주요 안건은 (1) 공급망 회복과 (2)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이며, 관련 분야가 광범위해 파장이 클 전망
 - 공개된 기술 리더십 분야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및 기후적응 기술
 - 외국자본의 산업 투자 동향과 투자 분야가 사이버 보안 및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을 수반하는지도 고려할 것으로 발표
-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이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기업 인수 합병을 저지하여, 우려국의 기술 탈취와 안보 위협을 방지할 전망
 - 일부 전문가는 심의 확대 대상이 중국으로 특정되지 않아,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우호국 투자도 견제할 가능성을 우려

* 자료 : 백악관 보도자료, 뉴욕타임스(9.15), 폴리티코(9.16)

□ [철도파업] 백악관 개입으로 철도 노사 양측 잠정 합의 도달

- 철도 노조 파업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백악관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파업 시작 하루 전 노사 간 중재에 성공
 - * 화물 철도는 미국 전체 화물 운송의 30~40%를 차지
 - 다만, 12개 노조가 합의안에 각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어,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더 요구될 전망
- 백악관은 타결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임금, 근로조건, 의료비용 지원을 얻게 될 것으로 평가
 - 이번 합의로 철도 노동자들은 4년(2020~2024)에 걸쳐 연봉이 24% 인상되며, 개인당 평균 11,000달러를 받을 전망

- 분쟁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
 - 일부 공화당 의원과 산업 관계자는 노사 간 임금 병가 규정 합의 과정이 지연되자, 정부가 사측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합의를 끌어낸 사실을 비판

* 자료 : 백악관 홈페이지(9.12)

□ [친환경] 백악관, 연방정부 주도의 신규 친환경 계획 발표

- 성명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일자리 증가, 저탄소 건설 자재 개발 등 정부 주도의 신규 계획 New Buy Clean을 발표(9.15)
 - 동 계획은 (1) 인프라 건설용 건설 자재 구매 시 친환경 자재 선점, (2) 연방 주도 저탄소 건설 프로젝트 확대, (3) 기존 정책에 선정된 기업 우대, (4) 탄소 배출량 추적 강화를 약속

<New Buy Clean 주요 참여 부처>

참여 정부 부처	주요 사업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친환경 건설 자재 혁신 지원 확대에 현존하는 탄소 집약적 건설 자재 대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도로포장과 건설 시 사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저탄소 제품에 보조금 지원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건축 시공과 관련된 친환경 교육,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제공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미 육군 공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저탄소 건축 자재로 전환 시 발생하는 기준과 규격 연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탄소감축을 위한 선구자(First Movers)연합 지원 확대와 해외 대사관 건설 시 탄소 배출 감량에 집중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함께 저탄소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평가 지침 연구·수정
종합서비스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향후 인프라 재건에 쓰이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친환경 정책(Buy Clean) 기준 발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친환경 벤치마킹 도구(Energy Star)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

(자료 : 백악관 팩트시트)

* 자료 : 백악관(9.15)

□ [소매판매] 8월 소매판매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우려 증가

- 미 상무부, 8월 미국 소매판매액의 전월 대비 0.3% 증가 공시
 - 8월 CPI 고려 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체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확인
 - 보고서는 8월 차량과 부품 관련 지출액이 전월 대비 2.8% 증가했고, 대면 수업 재개로 아동 의류 지출이 상승했다고 분석
 - 6월 최저점(50/100)을 기록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도 8월 회복세(58.2/100)를 보이며, 이번 소매판매액 증가 발표를 실제 소비자 심리 회복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 다만, WSJ은 소매판매액 증가가 실질적인 소비 증가 대신, 물가 상승률로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증가했을 가능성도 주장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9.15), 월스트리트저널(9.16)

□ [경기침체] 페덱스(Fedex) 부진 전망에 세계 경기침체 진입 우려 고조

- 라지 서브라마니암 페덱스(Fedex) CEO는 세계경기 악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향후 페덱스 실적하락의 주 요인이 될 것으로 발표
 - 실적 부진 전망과 높은 영업비용 부담에 따라 페덱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으로 언급
 - * 90개 사무실과 5개 본사 설비 폐쇄, 채용 및 항공편 축소
 - 일반적으로 글로벌 물류업체 실적은 세계 경제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계 경기침체 진입에 대한 현지 우려는 고조
 - 발표 이후 페덱스의 시간 외 거래 주가는 16% 이상 폭락하여 172.04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당 순익은 3.44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5.10달러에 못 미침.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9.16)


Notice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US22-35)
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Fed Now) 출시 전망 및 시사점(US22-34)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US22-33)
미리 보는 美의회 중간선거 결과와 관전포인트(US22-3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US22-31)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메릴랜드주 Larry Hogan 주지사 인터뷰(9월 9일)

 메릴랜드주 주지사 Larry Hogan	콘텐츠 제목
	‘주지사에게 듣는다, 한-미 바이오 투자협력의 중요성과 미래’
	주요내용

미국 4대 바이오 클러스터 중 하나인 메릴랜드주 주지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언과 바이오 투자협력 중요성 논의

- (뉴스구독) 카카오톡에서 'KOTRA워싱턴' 검색 후 '채널 구독' 클릭



1.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2. 채널 구독 버튼 클릭